

경(敬)에 대한 이해

鄭大珍*

目次

I. 머리말	4. 성(誠)과 경(敬)의 관계
II. 삼요체(三要諦)와 경(敬)	IV. 경(敬)의 실천
III. 경(敬)의 의미	1. 예법(禮法)의 실천
1. 경(敬)의 자의(字義)	2. 윤리도덕의 준행(遵行)
2. 주일무적(主一無適)의 경(敬)	3. 사려와 행동의 삼감
3. 예지본(禮之本)으로서의 경(敬)	V. 맺음말

I. 머리말

대순진리회의 신조가운데 삼요체(三要諦)의 내용은 수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다. 성(誠)·경(敬)·신(信) 세 가지는 모두 수도의 요체(要諦)가 되는 것으로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한가지도 빠져서는 안되는 항목이다. 성(誠)에 대해서는 주로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며, 경(敬)에 대한 것은 몸의 자세를, 신(信)은 주로 일에 있어서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다. 각기 가리키는 바가 있으나 이 세가지가 서로 모여서 일체가 될 때 곧 그 사람이 수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 앞서서 필자는 이 삼요체(三要諦) 가운데 성(誠)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여기서는 성(誠) 다음에 제시된 경(敬)의 문제를 놓고 중점적으로 다루보고자 한다. 경(敬)의 참된 가치는 성(誠)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순진리의 신조로서 행해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며, 그 신앙을 돈독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

히 하는 것보다 깊은 관련이 있다. 나아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敬)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경(敬)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해보고 그것이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삼요체(三要諦)와 경(敬)

신조에 있어서 삼요체(三要諦)의 의미는 사강령에 해당하는 안심·안신·경천·수도와 결부되어 수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이 된다. 사강령이 아무리 잘 갖추어졌다고 해도 성·경·신이 결여되면 신조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사강령만으로는 수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삼요체가 그 몸에 갖추어져야만 진정한 수도인으로서의 신행(信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 역(逆)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은 물론이다.

삼요체의 항목은 주지하다시피 성(誠)과 경(敬) 그리고 신(信)이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필자는 익히 민족의 전통사상으로서 성실(誠實)·경애(敬愛)·신념(信念)에 비유하기도 하였다.(『대순사상논총』 9집 참조) 이것은 또한 수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보았다. 앞선 논문에서 다루었던 성(誠)에 대해서는 순일무위(純一無僞)하고 미유부동(未有不動)하며 소원성취(所願成就)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삼았으며,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언행을 일치시키고 사심없는 노력을 하며 무한한 정성을 들일 것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성(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敬)은 역시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나아가 그 실천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순서를 삼을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대순종단의 자료에 소개되어 있는 경(敬)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기본적인 시각을 정립해보기로 하겠다.

『대순진리회 요람』에 나타난 경(敬)의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一身上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경이라 한다」

이 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경(敬)의 의미는 주로 예의에 입각한 몸가짐을 가리키고 있다. 몸가짐은 곧 심신(心身)의 조화로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천지신명과 타인을 향한 예의로써 표출될 때 올바른 경(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대순지침』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법이다.
- (나)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有其心 則有之 無其心 則無之)” 하였으니, 도인들은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권권복옹(拳拳服膺)하여야 한다.
- (다)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이라 하는 것이다.
- (라) 경은 예의 범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것이다.

윗 글에 나타난 경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첫째, 경(敬)은 마음에서 비롯하여 몸으로 표현되는 일체의 행동거지를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경은 상제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몸가짐을 바르게 가지는 것을 말한다. 셋째, 경의 몸가짐은 모든 예의를 실천하는데서 시작된다. 이같은 내용은 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대순 진리의 신앙과 관련하여 그 실천적인 면에서 가치를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몸가짐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이 마음이 발휘된 것이 행동이다. 그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가진 결과이며, 그 마음과 몸이 일치되어 이루어진 모든 행동이 경(敬)의 판단 기준이 된다. 모든 처세에 있어서 그 상황에 적합한 예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敬)의 실천의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는데 그 예의를 실천하면서 그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경(敬)이 될 수 없다. 수도인의 마음은 항상 대월상제(對越上帝), 즉 신앙대상이신 구천상제를 의경(畏敬)하고 받들어 모시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며, 이와 같은 정신으로 웃 어른을 존경(尊敬)하고 섬기며 타인을 경애(敬愛)하는 생활이 곧 경(敬)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敬)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그 몸가짐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며, 그 몸가짐이 곧 그 마음의 자세와

연결되어 항상 일치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경(敬)의 주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경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자세가 곧 몸으로 표출되는 형식을 살피고, 이어서 그 몸가짐의 전형으로서 모든 예의(禮儀)의 근본이 되는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를 살펴봄으로써 경(敬)의 총체적인 의미를 논의해보기로 한다.

Ⅲ. 경(敬)의 의미

1. 경(敬)의 자의(字義)

경(敬)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공경함, 삼감의 뜻을 지니고 있다. 공경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경하는 것을 말하며, 삼가한다는 것은 조심하고 근신(謹慎)한다는 말이다.

그 글자의 구성을 볼 때 구(苟)+복(支, 攴)으로 되어 있어 마음과 몸이 구차한 바를 가볍게 툭툭 두드림으로써 공경을 다한다는 뜻이다. 원 뜻은 엄숙함(肅)을 말한 것인데 엄숙하다는 것은 일에 있어서 경(敬)이 드러난 모양이다. 이와 같은 뜻이 전하여져서 공경, 엄숙, 삼감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몸이 하나로서 일치되지 않고 당장의 실리를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할 때는 이를 구차하다고 한다. 아무리 겉으로 예의를 잘 갖추었다고 해도 그 마음에 전혀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때에는 심신의 부조화가 일어나 결국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되도록 타이르고 계도하는 가치개념이 곧 경(敬)이다.

경(敬)의 뜻이 일상에서 쓰여지는 경우에는 외경(畏敬), 존경(尊敬), 경애(敬愛)등으로 나타난다. 외경(畏敬)이란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하늘님 또는 상제님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그 관감(觀鑑)만천(萬天)하시는 능력으로 인해 두려운 마음을 지닌다. 이 때 두렵다는 것은 위협을 당하여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그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의 잘못을 세세히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스러워서 두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엄위(嚴威)로운 존재에 대해 인간은 공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에 곧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외경(畏敬)이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은 외경의 감정은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심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을 구원하고 보살피는 절대자에 대한 귀의(歸依)의 행위는 모두 이러한 외경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대순진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신앙대상이신 구천상제에 대한 감정은 외경(畏敬)이 바탕이 된다. 수도란 곧 마음과 몸을 침잠(沈潛)하고 상제께서 항상 관감(觀鑑)하고 계심을 깨달아 상제님을 모시는 정신을 단전에 모아서 이를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는 것을 말한다.(대순진리회 요람) 이럴 때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규율하는 공경의 자세가 외경(畏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존경(尊敬)은 외경의 연장선상에서 인류에 나타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존장(尊長) 또는 부모에 대해 인사를 갖추는 때는 항상 공경의 마음이 뒤따라야만 하겠는데 경례(敬禮)로써 섬기는 모든 태도는 존경(尊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동양의 윤리에 있어서 하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심성이며, 바로 그 하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존장(尊長)이나 부모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모를 모시기를 하늘님 모시듯이 하고 하늘님 모시기를 부모 모시듯이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를 실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순진리의 수도인은 상제님 모시기를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모시듯이 하고 부모님 모시기를 상제님 모시듯이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존경(尊敬)이란 존장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말하며 그 앞에서 모든 예의를 다해나 가야만 할 것이다.

경애(敬愛)는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으로서 경천애인(敬天愛人)에서 비롯된다. 그 뜻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늘을 공경한다는 말은 지고한 가치와 꾸밈없는 자연의 법리를 공경한다는 뜻이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하늘만큼 최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존중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시해서는 안되는 신성한 존재로서 아껴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요약해서 곧 경애(敬愛)라고 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꼭 실천해야만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친분이 있건 없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존대하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주며 상대를 위해

항상 덕을 베풀어나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경애를 실천하는 것이다. 대순 진리를 신앙하고 수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포덕(布德)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는데 덕은 상제님의 덕이며 포덕은 상제님의 덕을 펴는 것이니 상제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경애(敬愛)를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경(敬)의 자의(字義)에 나타난 경(敬)의 뜻을 대략 살펴보았다. 그 공통된 것을 살펴본다면 먼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올바른 것이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경(敬)이며, 다음으로 그 행동에 있어 상대를 공경하는 표시로서 모든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처세하는 것이 경(敬)이 된다. 따라서 경(敬)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 두가지 방향을 위주로 하여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방향을 담고 있는 경(敬)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 여기에 필자는 여러 성현들의 설명을 참조하여 하나는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서 또 하나는 '예지본(禮之本)'으로서 이야기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일무적(主一無適)은 마음과 몸이 일치되어 변함없이 공경을 다하는데서 경(敬)이 됨을 말하며, 예지본(禮之本)은 모든 예의범절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경(敬)이 됨을 말한다. 다음에서는 이 두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경을 논해보기로 하겠다.

2. 주일무적(主一無適)의 경(敬)

주일무적(主一無適)이라고 할 때 주일(主一)이란 '하나를 위주로 한다'는 것이며, 무적(無適)이란 '이리저리 변하여 옮겨감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오직 하나를 향하게 되면 이것이 나아가 심신(心身)의 통일 혹은 집중상태를 가져오게 되니 마음의 일심(一心)상태가 곧 경이 된다. 주(主)자와 같은 용법으로 전(專)자가 쓰이기도 하는데 주일(主一)과 전일(專一)은 같은 뜻이라 하겠다. 유학자 정이천(程伊川)은 이러한 주일(主一)이 곧 경이 됨을 말하고 이것이 곧 일심(一心)이며 정제(整齊)엄숙(嚴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二程遺書』 권 15) 오로지 그 마음에 정성을 다하고 참된 것을 지닌 자세를 변치 않았을 때 주일(主一)이 되며 전일(專一)이 되는 것이다.

『대학혹문』(大學或問)에 이르기를 경(敬)이라는 글자 한 자는 성인(聖人)

의 학문에 있어 시작과 끝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경은 한 마음의 주재(主宰)가 되고 만사(萬事)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공부하는 자는 마땅히 경(敬)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경이 ‘하나를 위주로한다’는 것은 하나에 집중한다는 말과 통한다. 하나에 집중된 마음이란 곧 ‘본래 타고난 선(善)한 마음’이다. 이는 참된 마음으로서의 성(誠)과 통하는 것이다.

퇴계 이황(李滉)은 말하기를 경(敬)이란 ‘주일(主一)’이라고 하고 심(心)이 일신(一身)의 주재가 되면서 경(敬)이 또한 일심의 주재가 된다고 하였다. (『퇴계전서』) 이 말은 경이 정신을 하나에 집중 수렴하는 것이고 마음을 방만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경은 일신(一身)의 주재인 마음을 다시 주재한다고 말한 것이다. 참된 것은 성(誠)이고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하였는데 스스로 참되려고 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경(敬)에 힘쓰는 길 밖에 없음을 가리킨 것이라 하겠다.

퇴계에 있어서 경(敬)은 공경 또는 존경(尊敬)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음이 리(理)를 위주로 하면 고요하여지고 통일되나, 기(氣)를 위주로 하면 견잡을 수 없이 동요되므로 경(敬)으로서 마음을 주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경(敬)을 지남은 궁리(窮理)의 근본이라고 본 것이다. 이 때 경(敬)은 한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 한가지에 집중하여 방만하지 않는 것, 즉 주정적(主靜的)인 마음의 고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경(敬)은 동(動)을 반대하고 정(靜)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動靜)을 꿰뚫은 <관동정(貫動靜)>이며,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進聖學十圖筭』) 이렇게 해서 안과 밖이 합일하는 행동을 쌓게 되면 마음의 욕심이 씻기고 착한 행위가 이루어져서 인격이 완성되는데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진지(眞智)와 실천(實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행(知行) 병진(並進)론을 내세웠다. 요약하자면 퇴계는 경(敬)이 수도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일관하는 실천의 자세라고 본 것이다. 말을 할 때에도 경(敬)해야 할 것이며 앉아 있을 때에도 모름지기 경(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오직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마음이야말로 사람의 행동을 주관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

다. 이 마음에서부터 사람의 말이 나오고 행동도 나오게 된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나쁜 짓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대순진리회 훈회 가운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하였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쁜 마음을 먹지 말아라’는 것이다.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를 미워하면서 겉으로 아부하며 좋아하는 척 하는 것은 언젠가 그 사람에게 나쁜 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좋은 마음을 먹고 그것이 행동으로 그대로 우러나올 수 있을 때 비로소 경(敬)이 갖추어지게 된다.

마음은 여기에 있고 몸이 저기에 있으면 마음과 몸이 상반되어 부조화를 가져온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외면(外面) 가식(假飾)에 힘쓰게 되므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누가 보든 안보든 그 마음의 진실이 그대로 우러나와야만 한다. 다음의 전경구절은 이와 같은 경의 본질을 살필 수 있는 구절이다.

모든 일에 외면 수습을 버리고 음덕에 힘쓰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 (교법 2장 18절)

상제께서 전주 불가지(佛可止) 김 성국(金成國)의 집에 가 계실 때의 어느날 김 덕찬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을 귓가로 들었도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상제께서 덕찬에게 「이제 용소리 김 의관(金議官)의 집에 가서 자고 오너라」고 이르시니 그는 명을 좇아 용소리로 떠나느니라. 그가 김 의관의 집 근처에서 취한으로부터 심한 곤욕을 당하고 불가지로 돌아오니라. 상제께서 문 바깥에 나와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왜 자지 않고 되돌아오느냐」고 물으시니라. 덕찬이 공연히 보내어 봉변만 당한 것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도다. 상제께서 덕찬과 함께 방안에 들어오셔서 술을 권하며 가라사대 「사람과 사귄 때 마음을 통할 것이어늘 어찌 마음을 속이느냐」 하시니 그는 상제를 두려워하니라. 그후부터 덕찬은 지극히 적은 일에도 언행을 삼가하였도다. 상제께서 두 달동안 용소리 시목정(龍巢里柿木亭)에 계시면서 이곳 저곳의 종도들의 집에 다니셨도다.(행록 4장 18절)

모든 일에 외면 수습을 버리고 음덕에 힘쓰는 것은 그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다. 목적이 있다. 자신의 덕을 자랑하고 체면에 얽매어 겉치레에 치중하다 보면 모든 부조리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상대가 보지 않는 곳에서

는 부정과 불의가 싹트게 되고 온갖 사회적 해악을 조장하게 되니 곧 경(敬)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수도인으로서 마음을 속이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마음에 진실로 와 닿지 않는 일을 행하고서 그 일의 잘못을 논하는 것은 마음을 속이는 행위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맡아 행하고서 그 일에 전념하지 않고 일을 그르치는 것은 모두 마음을 속인 결과이다. 이것 또한 경(敬)을 상실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마음을 속이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두 마음을 먹는 것은 경(敬)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그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임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성공을 거둘 수도 없다. 경(敬)의 참된 의미에는 이와 같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종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느날 상제께서 「일본 사람이 조선에 있는 만고역신(逆神)을 거느리고 역사를 하나니라. 이조 개국 이래 벼슬을 한 자는 다 정(鄭)씨를 생각하였나니 이것이 곧 두 마음이라. 남의 신하로서 이심을 품으면 그것이 곧 역신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역신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도 역신인데 어찌 모든 극악을 행할 때에 역적의 칭호를 붙여서 역신을 학대하느뇨. 이러므로써 저희들이 일본 사람을 보면 죄지은 자와 같이 두려워 하나라」 고 말씀하셨도다.(공사 3장 19절)

박 공우가 한때 일진회의 한 간부였으나 상제를 따른 후의 어느날 가만히 일진회 사무소에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상제께서 문득 공우에게 이르시기를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 하시기에 공우는 놀라며 일진회와의 관계를 아주 끊고 숨기는 일을 하지 않으니라.(권지 1장 19절)

한 나라의 신하가 되어 국왕을 섬길 때에도 그 국왕을 향한 일심(一心)을 지니는 것이 경(敬)이며, 수도인으로서 상제님에 대한 일심을 지니는 것이 또한 경(敬)이 된다. 한 몸으로 두마음을 품게 되면 그 몸가짐이 부자연스럽고 언제 이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를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고 하였으니 명심해야 될 일이다.

이상과 같이 경(敬)은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서 그 마음과 몸의 일치된

자세를 의미하고 있다. 마음은 오직 하나로서 참되고 진실한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행동으로 일치되어 표출될 때 경의 본질이 드러난다. 경은 언행과 사려에 관통되어 있어야 하며 망령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근본이 된다. 대순진리의 수도인은 경(敬)을 지남으로써 상제님 모시는 마음이 진실해질 수 있고 그 언행과 생각에 참되고 바른 것만을 행함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3. 예지본(禮之本)으로서의 경(敬)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되어 그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히 그 몸가짐도 바르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그 몸가짐이 드러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나 의식(儀式)행사에 있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전형적(典型的)인 방법 또는 의식에 있어서의 바른 몸가짐을 총체적으로 아우른 것을 일러 예(禮)라고 한다. 예(禮)라는 글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示)는 제사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곡(曲)과 두(豆)는 각각 제기(祭器)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글자의 출발은 원래 종교적인 데서부터 나왔다고 본다. 천지신명을 공경하고 받드는 인간의 태도를 담고 있는 것이 예(禮)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예를 갖추는 그 근본의 자세를 문제삼을 때 경(敬)을 일컬으며, 경은 그래서 모든 예를 행하는 근본으로 인식되어져 왔다.(敬者 禮之本也 ; 『國語』) 『예기(禮記)』 「곡례(曲禮)」 첫머리에 ‘무불경(毋不敬)’이라고 한 것은 예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경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며, 언행을 함에 있어서 늘 자신을 경척(警惕)하고 약속(約束)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경(敬)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체(一切)행위(行爲)의 준칙(準則)이 된다고 본 것이다.

종교적인 성격으로 예(禮)가 출발했다면 경(敬) 또한 경천(敬天)의 사상에서 나온 만큼 서로 상통하는 것이다. 하늘(상제님)을 외경(畏敬)하고 공경(恭敬)하는 일체의 행위를 예로써 표현할 때 그 예는 인간의 순수한 종교적 감정을 아주 경건하게 표현한 것이 된다. 이 때 그 내면적인 자세를 총칭하는 것이 경(敬)이며, 여기에는 경건(敬虔) 공경(恭敬) 외경(畏敬) 등의 뜻을 담고 있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인문(人文)이 발달함에 따라 예(禮)는 정치적 윤리적 성격으로 강화되었고 심지어 국가의 통치수단으로까지 적용되었다. 공자는 도덕적 인간성 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던 성인(聖人)이라고 하겠는데 그는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예(禮)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않으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않으며,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論語』顏淵篇)고 하였다. 즉 모든 행동을 예에 의하여 제약하라는 것이며 이렇게 예를 실천하는 것은 상실된 본래적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이 예는 본래 종교적 의례형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바탕이 되었던 경외지심(敬畏之心)은 종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법제(法制) 사회적 전례(典禮) 윤리적 예의로 확장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사회적 윤리적인 예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반드시 경(敬)이 내포되어 있어야만 한다. 경(敬)이 빠진 예는 진정한 예가 될 수 없으며 허례허식(虛禮虛飾)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공자는 그와 같은 예의 본질이 외면적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예란 그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장례식에서 그 형식에 치중하는 것보다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論語』八佾篇)고 하였다. 여기서 예의 근본은 검소함이나 슬퍼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 예의 근본은 무엇보다도 경(敬)이 될 것이며 그 경(敬)은 내면의 진실되고 공경하는 마음이 외면으로 일치되어 발현된 하나의 가치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예를 사회적으로 발휘하고 각자가 행해나갈 때 하나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개인의 인격이 연마될 수 있다 하겠다.

대순진리를 수도하는 도인은 예로서 모든 체계 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

『대순지침』에는 예(禮)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예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일생동안 움직일 때나 정지할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起居動靜)를 가리지 않고 항상 정도를 넘는 일이 없이, 공경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인도(人道)를 갖추는 것을 이른다. 「도덕과 인의(仁義)도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풍속도 예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않는다. 부자 형제도 예가 아니면 윤리가 정립되지 않는다. 스승을 섬기고 학문에 힘쓰는 일도 예가 아니면

바른 수업이 될 수 없다. 군률(軍律)을 세우고 관직에 있어서 법을 행하는 것도 예가 아니면 위엄이 서지 않는다. 조상을 받들고 신명(神明)앞에 치성을 드리는 일에도 정성의 예를 갖추어야 하므로 사념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

예는 평범하면서 적중하여야 위의(威儀)가 서고 질서가 이루어져 화합의 바탕이 된다.

사람의 도가 예를 체로 삼기 때문에 그 체통(體統)을 바로 하여야 체계 질서가 정립된다.

윗 사람은 매사에 예를 갖추어 공정을 기하고 아랫 사람은 직책을 예법에 합당케 하여야 한다.

모든 임원들과 수반들은 부족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서서 뉘우쳐 깨달아 체통을 바로 잡고 체계를 세워 연원에 육급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윗 글에서 볼 때 예는 인도(人道)의 실천방식으로서 수도활동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군신 부자 형제 친우 사제간에 그 예를 잘 지킴으로써 인륜이 바로 설 수 있고 매사가 공정해진다. 나아가 조상을 받들고 신명 앞에 치성을 드리는 일에도 정성의 예가 갖추어짐으로서 공경심이 생겨난다. 그리고 예는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하며 서로간의 화합을 조성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예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아가 진정한 수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다.

대순진리의 신앙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천지신명의 존재이다. 예란 신명을 대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이것을 인간사회에 적용함으로써 제도화된 예가 나온다고 본다.

상제께서 대신명(大神明)이 들어설 때마다 손을 머리 위에 올려 예를 갖추셨도다.(공사 2장 5절)

상제께서도 대신명을 대할 때는 항상 예를 갖추었으며 천지공사에도 항상 천지신명을 불러들여 함께 공사를 집행하였다. 하지만 예를 갖추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신명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며 신명의 위엄을 알고 상제의 권능에 감화가 되면 예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예는 바로 경(敬)의 자세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경(敬)은 모든 예의 근본으로서 지성봉축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이 일상의 기거동작에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성(誠)과 경(敬)의 관계

성(誠)은 순일무위(純一無僞)한 것으로 하늘의 이법이며 사람 마음의 참 모습이다. 그래서 성(誠) 즉 참된 것이란 하늘의 도이요 참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하였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성(誠)은 또한 만물과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미유부동(未有不動)한 것이다. 정성(精誠)을 다하여 매사에 참되고자 노력하는 자는 그 바라는 바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있으므로 소원성취의 성(誠)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성(誠)은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천성(天性)의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성품의 선(善)함을 밝혀서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누구나 참된 성(誠)을 실천하고자 하면 그 마음의 성(誠)이 드러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

경(敬)은 성(誠)의 참된 마음을 지니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후천적 또는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뜻한다. 유학자 정명도(정호; 程顥)는 경(敬)이 성(誠)의 실제공부라고 보아 “성(誠)이란 하늘의 도이며 경(敬)이란 인사(人事)의 근본이니 경(敬)이 곧 성(誠)이다(誠者 天之道 敬者 人事之本 敬則誠; 『二程遺書』 권1) 라고 하였다. 이는 경(敬)을 행하는 것이 성(誠)을 드러내는 길이며 따라서 경(敬)은 곧 성(誠)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언행을 함에 있어서 늘 삼가고 조심하며 모든 예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 등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안된다. 따라서 성(誠)개념과 비교해서 말한다면 성(誠)은 선천적인 천도(天道)의 문제라 할 수 있고, 경(敬)은 후천적인 인도(人道)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誠)과 경(敬)의 관계에 있어서 성(誠)은 인간본연의 바른 마음이며 마음의 본(本) 모습이고 경(敬)은 인간본연의 바른 마음을 찾으려는 정신적 자세이다. 따라서 경(敬)은 성(誠)에 도달하는 관문(關門)이라 할 수 있으나 양자는 엄밀히 구분할 수 없는 표리(表裏)의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성(誠)은 내면성(內面性)을 지니고 경(敬)은 외면성(外面性)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성(誠)만 있고 경(敬)이 없으면 무례(無禮)하고 애살스러워 법을

여기는 경우가 생겨난다. 경(敬)만 있고 성(誠)이 없으면 형식에 치우쳐 체면과 가식(假飾)에 힘쓰게 된다. 성과 경은 이렇게 표리가 되어 서로 보완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 겸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안과 밖이 일치한 참된 사람이 된다. 안으로의 참된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예를 갖추어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 말을 믿어주게 되고 이를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상대를 감화시켜 화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성(誠)과 경(敬)의 관계에 입각하여 경(敬)에 대한 종합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敬)은 자기 수양의 요체(要諦)이다. 경(敬)은 참되고자 하는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몸가짐으로서 성(誠)이 바탕이 된 올바른 예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의를 실천하는데서 자신의 마음이 바르게 되며, 나아가 수양의 요체로서 경(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둘째, 경(敬)은 도(道)와 덕(德)을 쌓는 바탕이다. 도(道)는 진리이고 덕(德)은 은덕(恩德)인데 경(敬)이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진리를 행하고 은덕을 베푸는데 갖추어야만 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경(敬)이 없으면 진리를 부르짖더라도 진지하지 못하고 참된 진실을 전하지 못할 것이며, 경(敬)이 없으면 은덕을 베풀어도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 경을 지냄으로써 참된 도(道)와 덕(德)을 행할 수 있으므로 곧 도와 덕을 쌓는 바탕이 된다고 한 것이다.

셋째, 경(敬)은 망령(妄靈)된 생각과 행동을 지양(止揚)하는 것이다. 경(敬)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망령된 생각을 하지 않고 밖으로는 또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只是內無妄思 外無妄動) 망령된 생각은 그 마음을 흐리게 하여 나쁜 마음을 먹게 되고 급기야 상대를 해치는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敬)을 지닌다는 것은 먼저 그 마음을 참되게 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마음의 참된 것 즉 성(誠)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상대에게 예를 갖추어 베풀어 나가는 일체의 행위를 약속하는 것이 곧 경이 되는 것이다.

IV. 경(敬)의 실천

1. 예법(禮法)의 실천

경(敬)의 의미에 있어서 언급된 예지본(禮之本)은 일상의 모든 예법이 경(敬)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방법이라는 것을 뜻한다. 인륜(人倫)에 있어서 상하관계나 가족관계 또는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그 교제의 방법은 모두 예법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법은 본래 성인(聖人)이 제정한 것으로 하늘을 공경하고 천지신명을 대하는 자세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행해나가게끔 가르친 것이다. 부자(父子)간에도 친함이 있기 위해서는 예로써 대해야 하며, 국왕과 신하사이에 의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서로 예로써 대해야 하며 부부간에도 금슬이 좋기 위해서는 서로 예로써 대해야 한다. 나이 많은 어른과 아이 사이에도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로 예로써 대해야 하며, 친구지간에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서로 예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예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며 또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를 말라”는 것은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예로써 행해지고 예로써 인간관계가 이루어짐을 말한 것이다.

예를 갖추는 것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敬)이 없으면 예가 우러나오지를 않으며 또한 예가 아니면 경(敬)을 표현할 길이 없다. 언제나 예를 갖추어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되어 있고 서로 신의(信義)가 생겨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의를 철저히 지켜서 행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는 칭호를 들어 왔다. 그만큼 예의가 바른 민족이며 일상에서 예를 몸에 익혀서 생활해왔다. 어려서부터는 웃어른에게 항상 큰절로서 인사를 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항상 고(告)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존댓말이 어떤 나라보다도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도시사회에는 이러한 예법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아서 윤리도덕이 말살되어 가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가 아주 많아지게 되었다. 부자간의 패륜이 잦아지고,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사건, 친구간의 불의한

일,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하여 어른에 대한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행위 등은 굳이 신문기사를 보지 않더라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이로써 사회적인 해악이 증가하고 불안이 가중되며 질서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없어지고, 남녀의 구분도 없어지며, 사회적인 데모가 빈번하게 일어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경(敬)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다. 인(仁)·의(義)·예(禮)·지(智)·충(忠)·효(孝)·제(悌)·자(慈) 등의 전통적 윤리 덕목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경(敬)을 회복하는 것은 이상의 윤리 덕목을 다 찾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경(敬)이 있음으로써 남녀간의 사랑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하며 자식도 제대로 키울 수가 있다. 친구지간이나 부부간에라도 경을 지냄으로써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진정한 의리 또는 사랑이 싹트게 된다. 경(敬)은 곧 사양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이 마음으로써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좋은 마음이 생겨나서 언제나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경(敬)을 실천하는 길이다.

대순진리의 수도인은 신앙의 근간으로 모든 천지신명을 인정하고 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든다. 경천(敬天)과 수도(修道)를 신조로 삼고 생활하므로 하늘에 대한 공경이 근본이 된다. 모든 예의의 출발은 신명을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므로 신명을 두려워하고 모시는 마음이 곧 예로서 표출되는 것이다.

상제께서 당신에 대하여 심히 비방하고 능욕하는 사람에게도 예로써 대하셨도다. 종도들이 불경한 자를 예우하시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에 상제께서 말씀하시되 「저희들이 나에게 불손하는 것은 나를 모르는 탓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안다면 너희가 나를 대하듯이 대하리라. 저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것을 내가 어찌 개의하리오」 하셨도다.(교법 1장 12절)

상제께서 당신에 대하여 능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예로서 대하신 것은 성(誠)과 경(敬)으로써 사람을 감화시키는 표본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모르는 자가 항상 나를 헐뜯나니 내가 만

일 같이 헐뜯어서 그것을 갚으면 나는 더욱 어리석고 용렬한자가 되니라」고 하셨다.(교법 1장 27절) 비록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를 탓하지 않고 꾸준히 예를 갖추어 나가면 언젠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고 나의 진실이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그 마음의 성(誠)을 간직해야 되고 변함없이 경(敬)을 실천하는데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禮)는 경(敬)을 실천하는 주된 방법이 된다.

앞으로의 시대는 예법이 바로 선 사회가 탄생하여야 한다. 구천상제께서 이룩해 놓은 천지공사(天地公事)에 따르면 후천선경에는 모든 사람이 예법에 맞춰 생활하고 어떠한 일탈도 생겨나지 않는 평화의 세계가 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원으로써 만고의 원한을 해소하고 이어서 새로운 법이 세워져 다시는 원한이 없는 낙원을 지속시켜나가야 한다.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공사1장 32절)

먼저 해원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예법과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을 달래주는 것이다. “세속에 전하여 내려온 모든 의식과 허례를 그르게 여겨 말씀하시길 「이는 묵은 하늘이 그르게 꾸민 것이니 장차 진법이 나리라」”(교법1장18절)고 한 것은 그 예법의 오용과 남발이 계층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상대적인 원망을 사게 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모든 원망이 해소되고 나면 새로운 예법이 세워져서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게 된다. “고부(古阜)는 예절을 찾는 구례(求禮)이니라.”(교법2장47절)고 하였듯이 ‘예(禮)’는 어느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한 표현방식이며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예(禮)를 배우고 행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경(敬)의 주요한 실천방법이 된다 하겠다.

2. 윤리도덕의 준행(遵行)

경(敬)을 실천하는 길에 있어서 윤리도덕을 준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항목이 된다. 인륜(人倫)은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며, 사람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윤리란 그러한 인륜의 행위에 하나의 이치가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여기서 이치는 곧 도(道)이다. 도(道)의 원리는 음양(陰陽)으로서 음양이 이치이고 이치가 경위(經緯)이며 경위가 법(法)인 진리이다.(『대순지침』 p.18) 따라서 도(道)는 우주만상의 시원(始源)이면서 생성변화의 법칙이다. 덕(德)은 곧 인성(人性)의 신맥(新脈)이며, 신맥은 정신의 원동력이다. 이 원동력을 발휘하는 것이 윤리도덕으로 나타난다.(『대순지침』 p.44) 진리인 도(道)를 실천하는 것이 말하자면 도덕이 되는 것이다.

윤리가 철학에 가깝다면 도덕은 종교에 가깝다. 철학적으로 확고히 선(善)의 가치를 인식했다면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나아가 누구에게나 권유할 수 있는 지성(知性)의 힘이 생겨난다. 종교적으로 도(道)는 천도(天道)이고 천지신명의 도(道)이다. 천지신명에 대해 외경하고 두려워한다면 도덕을 지키는 것은 곧 천지신명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윤리도덕을 준행한다 함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천지신명을 공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아우르는 것이 곧 경(敬)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경(敬)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상대의 잘잘못을 보게 되면 이를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경(敬)이다. 모든 인륜(人倫; 군신 부자 형제 친구 사제관계 등)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敬)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쉽다.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상대를 업신여기며 거만해진다. 하지만 경(敬)을 생각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천지신명 앞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설령 자신의 지위가 높아졌다 한들 상대를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성(誠)으로서 정성을 들이더라도 경(敬)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경(敬)이 없는 성(誠)은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양심을 되찾을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저버리고 다시 윤리도덕과 양심의 세계로 되돌아 오는 것은 경(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제께서 정 남기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우가 부모에 대한 불경한 태도를 보시고 그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니라. 그 아우가 부친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불손하게 대답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 오려는데 문 앞에서 갑자기 우뚝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면서 연달아 소리만 지르니 가족들이 놀라 어찌 할 줄 모르는지라. 상제께서 조금 지나서 그의 아우를 돌아보시고 「어찌 그렇게 곤욕을 보느냐」고 물으시니 그제서야 그의 아우가 몸을 굽히고 정신을 차리는지라. 그 까닭을 가족들이 물으니 그의 아우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데 갑자기 정신이 아찔하더니 숨이 막혀 마음대로 통하지 못하였다 하니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그 때에 너는 숨이 막히고 답답하여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하시며 크게 꾸짖어 가라사대 「네가 부친에게 불경한 태도를 취했을 때 부모의 가슴은 어떠하였겠느냐 너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지니라」고 일러주셨도다. (교법 1장 40절)

상제께서 장 익모(張益模)의 집에 가셨을 때 그가 자기 어린 아들을 지극히 귀여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교훈하시기를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도의로서 부모를 잘 공양하라」 하셨도다. (교법 1장 41절)

윗 글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일깨우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도덕의 실천가운데 부모 자식간의 윤리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때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은 경(敬)을 실천하는 표본이라고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해 불경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곧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자신의 복을 이루는 근간을 망각한 소치이다. 자신의 경(敬)을 회복해서 그 도리를 다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윤리도덕적인 실천을 보여나가는 것이 그 선행과제가 된다 하겠다. 부모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친구 형제 사제지간에도 그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순진리의 수도인은 이와 같은 윤리도덕을 지키고 행해나가는 데서 그 수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대순진리의 도(道)는 바로 윤리도덕적인 도(道)이며 그 엄격한 윤리도덕을 오늘날 바로 세우고 시행해 나가는 역할을 수도인들이 맡아야 한다. 엄위로운 상제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그 덕화가 만방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윤리도덕을 앞장서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그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사회를 도덕사회로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문명의 바탕하에서 새로운 윤리도덕의 세계를 이루어내는 것이 또한 대순진리의 종교적 목적이 된다 하겠다.

3. 사려와 행동의 삼감

경(敬)의 의미에 있어서 경건(敬虔) 공경(恭敬) 외경(畏敬) 등은 수도인으로서의 신앙 자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여기서 구천상제에 대한 외경(畏敬)의 자세가 기본이 되어 모든 행동이 우러나오게 된다. 경(敬)을 지닌다는 것은 상제와 천지신명이 항상 관감(觀鑑)하고 계심을 알아 그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상생활의 자세도 항상 조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경천(敬天)은 하늘 즉 상제님을 모신다는 말인데 이는 외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을 말한다. 두려운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지 타인에 의해 강요되거나 위협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상제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감독한다는 것을 앎으로써 저절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이 안본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할려고 해도 스스로 조심스러워 감히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상대를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이미 밝고 지오지밀(至奧至密)한 신명의 존재를 의식하면 어떤 사람도 감히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삼가고 조심하는 것은 경(敬)의 실천 가운데 중요한 항목이 된다 하겠다.

경(敬)을 상실하면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말도 경망스러워진다. 경(敬)이 있어야 윗 어른을 모시고 섬길 줄을 안다. 경(敬)을 지냄으로써 자식을 이빠 할 줄을 알게 되고 부부간에도 금슬이 좋아질 수 있다. 경(敬)이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다. 진정한 예의(禮儀)와 자애(慈愛) 그리고 사랑과 같은 덕목은 그 자체의 경(敬)을 위해서 반드시 사려와 행동의 삼감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갖춰야 할 예의는 깎듯이 다해야 하며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부자간에도 마찬가지로이며 부부간에도 그렇다. 부부간의 경(敬)이 없으면 상대를 업신여기게 되고 다툼이 잦아진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없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 친한 관계일수록 경(敬)이 있어야 하며 더 깎듯이 예의를 다해나가야 한다. 동물도 어미·자식간에 또는 암·수간에 애정의 표시는 한다. 그 애정은 본능적인 것으로 감각에 치우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경(敬)은 타고난 본능에 의한 표현이 아

니며,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자각적(自覺的)인 행동을 말한다. 오래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심도 집착도 없이 진솔하게 자신의 참된 성(誠)을 드러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려와 행동을 삼가는 것이 바로 경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서로간의 신뢰를 조성하고 윤리도덕적인 사회를 이루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다.

대순진리의 수도인이 경천(敬天)하는 마음 없이 기도를 한다면 감응(感應)이 있을 수 없다. 천지신명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진솔된 마음으로 기도를 모셨을 때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그 생활에 있어서는 신명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언행을 삼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데서 생겨나며 이 마음은 곧 신명의 관감(觀鑑)을 두려워하는데서 출발한다.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수도를 하며 잘못 생각하는 것, 상대를 음해(陰害)하는 것 등은 삼가는 것이다. 신명 앞에서 자신의 사려와 행동을 삼가지 않을 수 없고 그와 같은 자세를 다해서 인간관계를 행해나갈 때 수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하겠다.

김 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뢰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없거늘 어찌 두려워 하느냐」 덕찬이 더욱 황겁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도다.(교운 1장 23절)

신명의 존재를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서 거만한 행동이 나오고 자만에 빠지기 쉽다. 관감(觀鑑)만천(萬天)하시는 상제의 권능을 확인하고 천지조화의 위력을 실감한 연후에야 비로소 신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이로써 경(敬)을 실천하고 몸가짐을 삼가는 것이다. 수도를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신명을 두려워하는데서 모든 실천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행동에 있어서 거만한 것은 수도인의 자세가 될 수 없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려와 행동을 삼가고 경천(敬天)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므로써

경(敬)의 진정한 실천이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경(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그 실천방식에 대해 논해보았다. 경(敬)은 대순진리회의 신조 가운데 삼요체(三要諦)의 하나로서 성(誠)과 신(信)이 합해져 수도의 총체적인 자세를 이룬다. 그 주된 의미로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째는 모든 예의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서 오직 한마음이 발현되어 변함이 없는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경(敬)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경천(敬天)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하늘 즉 상제님을 외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일상생활에서 연장되어 나온 것이다. 그 자세의 표현으로서 매사에 경건한 마음으로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이 또한 경(敬)의 생활이 된다고 보았다.

경(敬)에 대한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방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겠는데 대순진리의 수도인은 그 수도생활의 요체로서 그 경(敬)이 우러나오도록 힘써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 실천방식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요한 사항을 언급하기를 첫째로 모든 예의를 빠트리지 않고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들었다. 두 번째는 윤리도덕을 준행하여 사회질서의 안녕과 국민민복에 기여하는 것이 경(敬)의 실천이 된다고 보았으며, 세 번째로 일상의 사려(思慮)와 행동을 삼가는 것이 또한 경(敬)의 실천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실천방식의 근거에는 항상 상제님의 관감(觀鑑)과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의식한다. 신명을 대하는 마음이 곧 경(敬)으로 우러나온 것이다. 신명 앞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몸가짐을 일러 한마디로 경(敬)이라 표현한 것이다. 수도인으로서 이러한 경(敬)의 의미를 올바로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대순진리의 신앙에 있어 빠트릴 수 없는 요체(要諦)가 되고 있다 하겠다.